

건강한 꿈이 자라는
**경기북부
 산업보건센터**
**경은학교
 무료검진**

글_홍아름 사진_엄태헌

선생님의, 그리고 친구들의 손을 잡아본 지 얼마나 됐을까. 접수를 마치고
 혈압을 재러 갈 때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동한다. 채혈하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는다.

선생님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속삭인다.

경은학교에서의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무료 건강검진은 아이들과의 교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언제나 아이들을 향한 시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는 혼자서 자랄 수 없으며, 많은 이들의 도움과 사랑을 먹고 자라야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 그 아이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학교가 있다. 경은학교는 장애를 가진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전공과정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역량을 기르는 곳이다. 학생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목),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경은학교 2층 강당에서 이루어진 이번 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접수부터 시력, 혈압, 소변, 혈액검사, 진찰을 순서로 진행된 검진이 익숙한 듯 아이들은 순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검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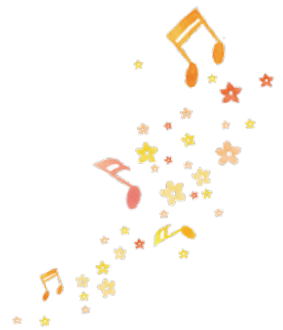
경은학교와의 인연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한 후 정기적인 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6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해서일까. 검진과정 곳곳에는 아이들의 편의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직원들의 마음이 녹아있다. 시력검사에서는 숫자카드를 만들었다. 시력검사 표에 보이는 숫자를 말하기 불편한 아이

들을 위해 아이가 보기 편하게 숫자카드를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많은 아이들이 검진을 받는 만큼, 건강검진 기록지를 꼼꼼히 살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게 모두가 검사를 다 받을 때까지 직원들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은 아이들을 향해있다.

교감으로 문을 연 무료검진

하지만 검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처음에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서툴렀다.

“평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검진했던 것처럼 진행하다 보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아이들과 교감하는 법을 익힌 후에야 익숙하게 검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무서운 게 아니라고 달래준다. 손을 꼭 잡고 얼굴을 껴안아주며 진심을 전한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열 마디의 말보다 따스한 마음을 전한다. 그렇게 검진을 받는 동안에는 직원들 모두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된다. “그렇지”, “잘했어!” 잘 참고 의젓하게 검사를 마친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씩씩하게 검사받은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아주는 선생님, 그리고 그 곁에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직원들. 아이들과 마음을 나

누는 방법을 터득한 뒤로 검진은 직원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닌 하나의 즐거움 만남이 되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만 있다면

한 아이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꾸준히 봐온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그에 맞게 검사를 진행하는 것,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뿌듯함을 느끼지만,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진다.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여태껏 이런 검사를 하는지도, 받아야 하는 건지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없는 줄만 알았는데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검사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열 마디의 말보다 따스하다. 그렇게 검진을 받는 동안에는 직원들 모두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된다.





데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히 검진하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한번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검진과정을 견학한 학부모들도 있었다. 아이가 아프지 않은 이상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거부 받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었는데, 그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특히나 몸이 불편한 아이를 데리고 먼 곳까지 검사받으러 가기에 여의치 않은데, 학교까지 찾아와 무료검진을 해주니 아이도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었다면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원들은 검진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강당을 분주히 오가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혈액검사의 경우에는 평소에 하기 어려운 검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검진을 받으러 온 아이들 모두에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아프다는 아이에게는 괜찮은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마음을 어루만진다. 검사과정 틈틈이 강당을 둘러보며 아이들에게 시선을 놓지 않는다. 그 눈길에는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라는 직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

